

평점 9.9... 이보다 잘 할순 없다



손흥민 EPL 에버턴전 2골 1도움·5골에 관여 특급활약
토트넘 6-2 승 리그 3위... 이번달에만 5골 '무서운 질주'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26·토트넘)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폭발하고 도움까지 추가하는 '특급 활약'으로 12월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24일 에버턴과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0-1로 뒤진 전반 27분 균형을 맞추는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7호 골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20일 아스널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 결승 골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그는 팀이 4-2로 앞선 후반 16분 추가 골을 뽑아내 시즌 득점을 8골(리그 5골)로 늘렸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건 지난달 1일 웨스트햄과의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다. 리그에선 시즌 첫 멀티골이다.

이어 그는 후반 29분 해리 케인의 췌기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4번째 도움까지 기록했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리는 절정의 감각을 뽐냈다. 아울러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정규리그에서만 50번째 공격포인트(35골 15도움)를 돌파했다.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인 6골을 몰아치며 6-2로 대승을 거둬 리그 4연승을 이어갔다.

최전방에 케인, 2선에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를 가동한 토트넘은 전반 21분 선제골을 내주며 흔들렸다. 그러나 6분 만에 터진 손흥민의 동점 골이 역

전의 발판을 놔다.

해리 케인이 센터 서클에서 공을 길게 넘겼을 때 전방에 혼자 자리한 손흥민은 불을 따라 페널티 아크 오른쪽으로 뛰어 들었다.

이때 앞으로 나와 불을 처리하려던 에버턴의 조던 픽퍼드 골키퍼가 수비수와 영키면서 넘어졌다. 수비 방해로 받지 않은 채 공을 따낸 손흥민은 강한 오른발 슛을 빈 골대에 꽂아 넣었다.

전반 35분 알리의 역전 골 상황에도 손흥민은 관여했다.

페널티 지역 왼쪽 손흥민의 강한 오른발 슛을 픽퍼드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았으나 손을 맞고 흐른 공을 알리가 오른발로 때려 골문을 열었다.

전반 42분엔 키어런 트리피어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이 다시 픽퍼드의 손에 걸렸으나 케인이 이를 놓치지 않고 밀어 넣어 기세를 이어갔다.

토트넘은 후반 3분 에릭센이 매서운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더하며 격차를 벌렸다.

에버턴이 3분 만에 길비 시쿠르드슨의 만회 골로 따라오자 다시 손흥민이 나섰다. 손흥민은 후반 16분 라멜라의 패스를 오른발로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절묘하게 꽂아 넣으며 사실상 토트넘의 승리를 알렸다.

이것도 모자라 손흥민은 후반 29분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보내 케인의 추가 골을 도와 승부에 완전히 췌기를 박았다.

제 역할을 100% 이상 해낸 손흥민은 후반 34분 원정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올리버 스킵과 교체돼 나갔다. /연합뉴스

벤투호 '베스트 11' 경쟁 치열

UAE서 첫 훈련... 내년 1월 1일 사우디 평가전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59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벤투호 태극전사들이 '결전의 땅'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첫 훈련을 펼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벤투(사진)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9시 30분부터 UAE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예드 크리켓 스타디움 훈련장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유럽 등 해외파 8명이 빠진 17명(에버턴 2명 포함)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떠나 10시간 30여분의 이동을 통해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숙소인 '더 웨스트 아부다비 골프 클럽 & 스파'에 여장을 풀었다.

기성용(뉴캐슬)을 비롯해 정승현(가시마),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쿠스부르크),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창용(보훔) 등 7명은 25-26일 사이에 대표팀의 아부다비 캠프에 도착할 예정이다.

손흥민(토트넘)은 소속팀과 협의에 따라 내년 1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 뛰고 나서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다.

에버턴의 이진현(포항)과 김준형(수원)을 포함한 17명의 선수와 조만간 합류하는 해외파 7명의 선수를 합친 24명의 선수는 아시안컵 베스트 11의 윤곽을 결정하게 될 사우디아라비아 평가전(2019년 1월 1일)을 앞두고 치열한 주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벤투 감독은 지난 11일부터 울산 전지훈련을 치르면서 선수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첫 번째 점검을 바탕으로 아시안컵 최종엔트리 23명을 확정했다. 이어 UAE 아부다비로 캠프를 옮겨 베스트 11의 윤곽을 정하기 위한 두 번째 점검에 나섰다.

일단 벤투 감독의 첫 과제는 선수들의 빠



른 현지 적응이다. 겨울에서 여름 날씨로 이동하는 만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대표팀은 울산 소집훈련 동안 크고 작은 부상 상황을 겪었다. 소집훈련 마지막 날 연습경기에서 주세종(아산)과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쓰러지면서 코칭스태프를 긴장시켰다.

여기에 무릎 부상을 안은 상태로 대표팀에 합류한 황인범(대전)도 그동안 정상 훈련을 못 했고, 홍철(수원)과 김민환(부산) 역시 최상의 몸 상태는 아니다.

벤투 감독은 아부다비 캠프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및 부상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손흥민 공백'의 대안 마련에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 이후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소속팀에서 강행군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피로 누적으로 조별리그 3차전 출전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칫 조별리그에서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만큼 '베스트 11 완성'과 '손흥민 공백 대안'이 발등의 불이었다. /연합뉴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첫 번째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6-2 대승에 앞장섰다. /연합뉴스